▌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1호[2009. 6] : 99~132

모로코 이민자 정착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임 주 인**
(Lim, Ju-In)

<Abstract>

El Problema de Inmigración Marroquí en España y la Búsqueda del Plan para la Integración Social

Este trabajo intenta investigar la vida de los inmigrantes marroquíes en España con especial atención a los aspectos culturales y religiosos, así como las actitudes de la sociedad española ante este proceso. Para eso, en primer capítulo, investigamos la razón y la historia de inmigración entre España y Marruecos. Y en segundo capítulo, descubrimos la situación de los inmigrantes marroquíes en Andalucía y Cataluña, por ejemplo, a través de la población marroquí ocupada por sexo y profesión y del nivel de estudios de población marroquí. En tercer capítulo, buscamos el método de integrar los inmigrantes marroquíes a pesar de la islamofobia divulgada en España desde el punto de vista humanitario.

[Key Words: Marroquí/ Integración Social/ Inmigración/ Sadaqa/ Diaspora]
[주제어: 모로코인/ 사회통합/ 이민/ 사다까/ 디아스포라]

* 이 논문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A00021)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E-mail: jlimoh@pufs.ac.kr

Ⅰ. 서론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했다. 711년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스페인 영토를 침범했던 무슬림들이 20세기 다시 스페인으로 이민해 들어오는 현상을 보면서 로뻬스 가르시아(López García)는 "모리스꼬들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다(M. de Epalza 1988, 40). 마그렙과 모리스꼬 사회와 역사를 전공한 가르시아는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대륙 사이에서의 인구의 이동을 단순히 나라와 나라간의 이민이 아니라, 지중해 문명과의 관련선상에서 파악했다.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오가면서 보이지 않는 땅과의 접촉은 계속되고 복잡한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던 바다 너머에 있는 '타자'들에 대한 관심은 호머의 오디세이에서처럼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충격을 흡수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14, 15세기 지중해 유역의 지도를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땅과는 다른 지역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자아/타아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지도를 보면서 자신들이 어디에서 발원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자기들의 영토를 위협할 존재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 중에 중세 유럽 전통에 따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남쪽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생겨났는데 이런 의식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지중해, 특히 지브롤터 해협을 중심으로 스페인과 모로코 지역 사이에서 뿌리내리게 되었다(M. de Epalza 1988, 44). 그리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 아랍어와 영어의 두 언어로 표기된 지도까지 등장하게 된다.

스페인에서 쫓겨난 모리스꼬들이 1609년에 튀니지에 자리잡게 되는데 종교인 시디 아불 가즈 알 까막스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는 그곳 주민들과 함께 메카로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 너희들이 도착하는 모든 땅에서 그들은 반겨주리,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씨를 자라게 해 주는 비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즐겁게 반겨주리, 왜냐하면 너희들은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한 자들이니까, 신은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눈을 보호해주시리, 전심으로 신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걸 들어 알찌니(M de Epalza 1994, 21).

이러한 대륙 간, 문명 간의 이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북아프리카와의 문물 교류는 20세기에 와서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이주해가는 이민자가 늘어가지만, 그들의 사회적응, 내지는 사회 통합 면에 있어서 중남미인이나 동유럽인에 비해서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1] 이민의 역사가 40년에 육박하고 있는 이들 모로코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번 논문에서는 북아프리카에서 스

1) *El País*의 2001년 3월 29일자 신문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CI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민자 집단이 중남미와 동유럽 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Iberoamericanos	(59.6%)
Europeos del Este	(18.0%)
Marroquíes, argelinos,etc.	(4.4%)
Asiáticos	(0.9%)
Africanos del 'Africa negra'	(0.9%)
No sabe/No contesta	

"스페인인들이 어떤 집단이 스페인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는가?"(출처: 29/3/2001 *El País*)

페인으로 이주해가는 이민자들 중에서 특히 모로코인의 스페인 이주의 역사와 지역별 이주 현황, 그리고 현재 스페인 이민자 규제 정책에 따른 사회통합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모로코인의 '디아스포라'의 역사

모로코인들의 이민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이들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부터 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로코인의 이민 전형이 노동이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로코가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초기 노동이민국은 프랑스였고 그 이후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로 확대되어 갔고 서남부 지방의 키프(kif)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모로코인들의 유럽 이주가 시작된 것이다(Mcneill 1992, 392).

키프는 베르베르 언어로 마리화나와 담배를 섞어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마리화나를 부르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1880년대 주민들이 키프를 피우기 시작했고 1910년에 이르러 재배가 시작되었다. 압델 카림이라는 무슬림 지도자는 이를 금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재배를 멈추었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의 통치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허락 하에 키프를 다시 재배하기 시작했다. 모로코에서도 키프의 재배를 불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암묵적인 승인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는 키프의 수출로 인한 수입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 키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키프 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키프의 생산을 위해 재배지역 주민들은 북유럽

으로 노동이민을 떠나게 되고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의 공장과 생산지 사이를 오가는 이민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생산과 소비의 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모로코 이민자들이 널리 퍼져 살기 시작하면서 스페인과 이태리, 심지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로까지 이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유럽을 넘어서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 요르단에까지 이르면서 유럽-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적 교류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 중 키프를 재배하는 지역 출신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되었고 카사블랑카(Casablanca)와 베니 멜랄(Beni Mellal)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모로코인은 9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본국으로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는 모로코인들이 늘게 되어 이민 제2세대들이 나타나게 된다(Mcneill 1992, 3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는 마그렙들은 그들이 유럽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유럽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이슬람 문화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럽인들의 모로코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고 이들의 노동 이민이 순탄치 않았다. 그렇다면 키프 재배로부터 시작된 스페인 이민은 향후 어떠한 추세를 띠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스페인에서의 모로코 이민의 어제와 오늘

1) 모로코 이민 역사와 현황

모로코가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아온 관계로 일찍이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1830년에는 북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간섭

이 증대되었다. 스페인은 모로코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주요 이민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스페인인들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지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2)]

(그림1) '라 엘비라' 호에 타고 1949년 5월 베네수엘라의 가루빠노 항구에 도착한 승무원들의 모습("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된 카나리아 불법이민자 160명") (출처: *Agencia Comercial*,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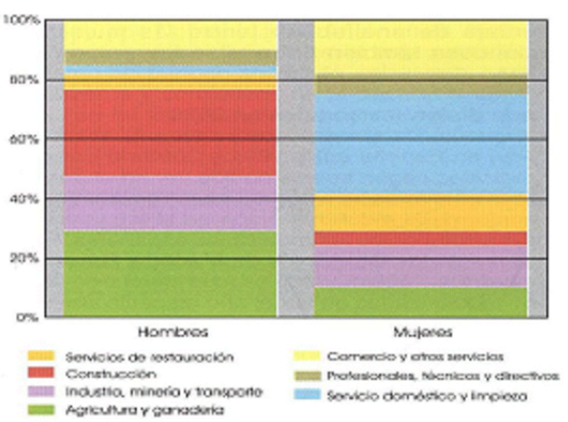
1973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이들 북부 아프리카인들의 이민을 제한하게 되자, 유럽으로 이민을 떠나고자 했던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에 머물면서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García-Canclini 2004, 24). 바르셀로나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점차 이주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슬람 문화의 자취가 남아있는 안달루시아 지방과 발렌시아, 그리고 마드리드 지방에 이민이 집중하게 되고 이들에

2) 위의 사진은 1996년 곤살로 모랄레스 에르난데스(Gonzalo Morales Hernández)의 저서 *Fugados en velero*의 표지에 실린 1949년 카나리아 태생 스페인 이민자가 엘비라(Elvira) 호를 타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베네수엘라 까루빠노(Carúpano) 항구에 도착한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1949년 *Agencia Comercial* 지의 1면에 실렸던 것이다.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 신문을 비롯해서 전국에 퍼져있는 언론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Tele/exprés, Diario de Barcelona, La Vanguardia, El Correo Catalán와 같은 지방 신문에서 뿐 아니라, Pueblo, ABC, Arriba, Cambio 16 와 같은 전국 규모의 신문에서도 모로코 이민자에 대한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4년 5월 16일 "엘 문도(El Mundo Diario)"에 "북아프리카인의 비밀 왕래(tráfico clandestino de norteafricanos)"라는 기사가 났고, 1975년 10월 10일자 "엘 문도"에는 "신노예(nuevos esclavos)"라는 기사가, 그리고 1973년 11월 29일자 "엘 노띠시에로(El Noticiero Universal)"에는 "스페인 발전을 위한 인력(mano de obra para el desarrollo español)"이란 기사가 났고, 1977년 10월 5일, "엘 꼬레오(El Correo Catalán)"에는 "착취당하는 노동시장(mercado laboral de explotados)"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신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72년에는 25,000명(La Vanguardia, 1972/11/10)이, 1973년에는 35,000명(El Correo)이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ABC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1973년 50,000 (1973/11/9)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77년 7월 6일자 엘 디아리오(El Diario) 16에 "스페인에 숨어 살고 있는 모로코인은 십만을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로코인의 수효는 까딸루냐 지중해 연구소에 의하면 1975년 428명, 1980년에 64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ICM 1994). 그러다가 1985년 외국인 거주법 규정이 생겨난 이후, 1986년부터 외국인들의 등록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민자들의 수효가 급증하게 된다. 1991년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모로코 이민자의 수효가 배로 증가했고 1991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171,261명의 모로코인들이 통계 숫자에 포함되게 되었고 2003년 말까지, 총 333,770명의 모로코인들이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등록 장부에 명기된 모로코인의 숫자가 줄어든 데에는 모로코 이민 2세대들의 증가와 외국인 비자취득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 등에 원인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민자 2세대들은 스페인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 명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모로코 이민자 중 연령별, 성별 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등록된 모로코 이민자들 중 25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표1)에서 보다시피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주로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농업이나 건설업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비는 3:5로 남성이 많고 여성 이민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여성 이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스페인에 살다가 프랑스나 독일 등지로 이민 가기 위해서 남성들만 이주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스페인에 오랫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고국에 남겨둔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1) 모로코 출신 이민자들의 성별, 직업별 분포
(출처: 2001년도 국가통계청(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표1)에 의하면 전체 모로코 이민자의 40%가 기혼자이며 이 중 남성이 36.4% 그리고 여성이 25.6%를 차지하고 있다(IN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스페인에 이주해온 모로코인 가정 중에서 24.8%의 여성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에 이주해 온 다른 이민자들과 비교해볼 때, 여성의 사회 참여, 내지는 노동은 극히 낮은 게 특징이다. 콜롬비아와 에쿠아도르 태생 이민자를 비교해보면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이들 중남미 이민자의 성비가 거의 동일하거나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종사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건설, 여성의 경우 가사 도우미를 비롯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에 비해 모로코 여성들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스페인어 교육을 받거나 자녀 학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하는 것이 사회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모로코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참여가 부진한 탓에 0세에서 15세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다른 외국 이민자를 훨씬 능가하면서도 언어소통의 부재로 이민자 1.5세나 2세들의 스페인 사회 통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일간지 엘 빠이스(*El país*) 2008년 4월 3일 자 사설"(¿Si el 'hizab' es algo escogido?)"에서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성적 학대를 자행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민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당의 이민 억제 정책에 대

3) 2002년 1월 자치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콜롬비아인과 에콰도르인(출처: 2002년 국가통계청 자료)

	colombiano	colombiana	ecuadoriano	ecuadoriana
Total	81018	110000	128044	131478
Andalucía	4120	6488	4726	4293
Marid	27001	34162	49306	57915
Cataluña	11282	14518	17438	20195
Valenciana	11990	14424	13805	12525

해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이 사설에서 기자는 국민당의 이민 정책은 편견에 사로잡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스페인 내에 반이민주의, 아랍인 혐오주의를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여성이민자의 문맹률이 40%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민 1.5세와 2세의 교육을 책임진 자들로서 이들의 스페인 적응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Países	Primaria(6~12)	Primer ciclo ESO (13~14)	Segundo ciclo ESO (15~16)
América Latina	95.1	87.3	70.7
África	86.4	86.4	69.5
Asia	89.6	81.8	84.0
Europa del Este	95.6	100.0	64.0

(표2) 스페인 이민자녀의 출신 국가에 따른 적응성 백분율
(출처: 2003년 국방성 보고(Informe del Defensor del Pueblo))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에서 이주해온 학생들에 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기초 학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자녀의 부모 학력이나 직업과는 상관없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이민 온 가정의 학생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스페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무교육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스페인 자국민 자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이민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교육수준 비교(2003년, 유니세프(UNICEF))에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초기(Primaria)단계에서 아시아 이민자 자녀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점차 진급되면서 아시아계 자녀들이 교육 수준이 올라감에 비해서 아프리카 이민자 자녀는 계속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6세에서 25세에 해당되는 이들 중에서 39.7%만이 학업에 종사하고 12.6%는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노동에만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16세 이후, 이민자 자녀들의 저학력 추세는 비단 모로코 이민자의 자녀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로코 이민자 자녀 중 54%의 부모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도미니카 공화국(5.8%)과 페루(6.9%)-와 비교해볼 때, 언어가 다른 모로코 이민자 자녀의 사회 적응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Cebolla Boado 2008, 96).

이처럼 스페인 자국민과 외국인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에 비교해볼 때, 모로코 이민자의 문맹률이 이들의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은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로코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달루시아 지역과 까딸루냐 지역에서의 이민자 현황을 파악해보도록 하자.

2) 지역별 모로코인 이민자 현황

① 안달루시아 지역

모로코인들의 스페인 이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곳은 안달루시아 지역이다. 바르셀로나로 들어온 모로코인들은 안달루시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스페인 내에서 무슬림들의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아랍 문명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고 모로코와 아랍 이민자들이 문화적인 충격을 덜 받는 지역 중 하나였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서 모로코 이민자들은 소위 '범지역 공동체(comunidad transterritorial)'를 형성해나간다. 이들이 주로 안달루시아에 정착해서 종사하게 된 부문은 '농업'이다. 스페인 자국민들과의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지 않지만,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이민의 역사가 길었던 모로코 이

민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모로코인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루마니아 등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민족들의 이주로 인하여 이들 사이에서 인종적, 민족적인 차별의식이 생겨나고 인종-노동이 서로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모로코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부문은 건설업과 농업 등이고 중남미나 동유럽 이민자의 경우, 건설업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잦은 서비스직 중에서 모로코 이민자들의 수가 적은 것은 언어적 장벽 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친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안달루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슬람 문화와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자국민과 모로코 이민자간의 종교적인 갈등이 적은 지역이지만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2004년 3월 11일, 안달루시아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과 무슬림, 베르베르인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증이나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새뮤엘 헌팅턴의 '문화 충격론' 발표 이후,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문화적인 간극이 크면서도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안달루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García Castaña 2002, 407-420). 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활발한 편이다. 예를 들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와 같은 비정부단체(NGO)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치료하는 비정부 의료단체이고 또 난민을 위한 구호단체 CEAR(Comisión Española de Ayuda al Refugiado)는 스페인 거주 이민자들을 위한 구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

4)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와 관련해서 다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이트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국가와 지역에 따른 인종차별주의 웹 페이지로서

이것은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이 안달루시아 주민들에게 결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표회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마그렙들은 서비스직에 해당되는 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있어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0년, 엘 에히도(El Ejido)에서 벌어진 마그렙 청년의 살인 사건 이후, 서비스 관련 직종에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유럽이민자가 많이 고용되고 있다. 엔리께 페르난데스 미란다(Enrique Fernández Miranda)는 같은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는 중남미인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이 이슬람 문명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했다.

2002년 6월 세비야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불법이민자들의 자국 송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법이 모로코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디스와 안달루시아 시의회, 변호사 협회에서 불법 이주자의 본국 송환을 두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고 지브롤터 해안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다. 한편, 스페인 내에서도 모로코인의 본국 송환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들은 체류자들이 스페인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 자들로서 불법 체류자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이민법을 어긴 범법자로 규정하는 데에 반대했던 것이다.[5] 이들은 스페인 시민들을 불법 체류자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도록 조장하는 스페인의 이민자 규제 정책을 인도적 차원에서 거부했다. 그에 비해 불법 이민자의

<http://www.sosracismo .org>, <http://sosracisme.org>가 있고, "스페인 난민 구호 단체"(Comisión Española de Ayuda al Refugiado, CEAR)는 스페인 이민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스페인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서 인종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cear.es/home.php>.

5) http://www.euroresidentes.com/inmigracion/pedir- nacionalidad-español.htm (2008.12.20. 검색)

본국 송환을 찬성하는 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마피아나 범죄 집단에 연루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국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민자 송환을 주장하는 이들이 명목상으로 국가의 안보나, 국제 사회에서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럽과 이슬람 세계, 두 문명 간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다.

② 까딸루냐 지방의 모로코인들

60년대부터 시작된 모로코 인의 이민자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까딸루냐, 특히 바르셀로나 지역이 이들 이주의 1차 목적지가 아니었고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가는 지역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노동 허가 없이는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스페인에 머물면서 입국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모로코 노동 이주자들이 스페인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스페인 당국은 이들이 워낙 이동이 잦고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마저 부재한 상태여서 모로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꺼려했다. 대략 SECOD(situació dels treballadors nordafricans a Barcelona 197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모로코 이민자의 수가 1962년 6829명, 1963년 12835명으로 늘었다가 1965년 다시 7702명으로 줄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은 단지 프랑스 이주를 위해서 거쳐 가는 곳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유럽에서 노동 시장의 위기가 닥치자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었고, 이 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은 이민자들이 바르셀로나에 정착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라마단 시기와 맞물리면서 5600명의 이민자들 중에서 바르셀로나에 머문 사람이 2500에서 4000명에 이르고 이들 중 대부분은 모로코인이었다. 그들은 씨우땃벨야(Ciutat Vella)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차츰 바르셀로나의 주변으로 나

가서 공업지대인 꿀로마 다 그라마낫(Coloma de Gramenet), 농업지대인 마라스마(Maresme)등지로 흩어져 살게 되고, 80년대 이미 바르셀로나 언론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유입으로 바르셀로나는 물론 주변 도시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들을 분산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여 굳이 바르셀로나를 거치지 않고서도 까딸루냐 어느 지역에 들어가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 여파로 1999년에 8%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10%로 늘게 되고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까딸루냐 지역의 적극적인 보조정책으로 지역 곳곳에 모로코인 집단 거주지가 생겨나게 되었다(Moreras 2004, 217). 모로코 이민자의 분산정책으로 전체 모로코 이민자의 35.27%(2003/12/31)에 해당되는 117,752명이 까딸루냐 지방에 흩어져 거주하면서 이민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모로코 이민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모로코 이주민들에 대한 까딸루냐 지방 주민들의 경계심이 커져가게 된다.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2001년 63%에 해당하는 까딸루냐 주민들은 모로코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이주한 나라의 법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슬람교를 숭상하는 이들에게 바르셀로나 시에서 기도처를 열어 준 것에 대해 까딸루냐 지방 주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 그 좋은 예다.[6] 까딸루냐 지방 주민들이 모로코 이주민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로코인들이 이민자들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와 다른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들에 대해 자국민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이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장기 경제 호황이 끝나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

6) CIS, Encuesta sobre inmigración y racismo 1993 y Barómetro, febrero 2000.

데 스페인 2개 자치주에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고 AF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FP통신은 "과거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남미 출신 이민자를 대거 유치하며 이민자 천국으로 불리던 스페인이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해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7] 고 전했다.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은 주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이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파(la Derecha)가 차지한 발렌시아 주정부 역시 최근 이민 신청자들에게 스페인어와 발렌시아어를 익히게 하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인 한편, 좌파가 권력을 쥐고 있는 까딸루냐 주정부는 각 구역 학교에 등록되는 이민자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바르셀로나 지역 공립학교와 대학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자 유입에 따라 빈민가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안달루시아와 바르셀로나 두 지역에서 모로코 이민자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방향은 이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이다. 이러한 이민자 규제 정책으로 200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스페인에서 이들 모로코 이민자들의 수적 증가가 다른 유럽 이민자나 중남미 이민자들에 비해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

7) "경기 침체 스페인, 이민 규제 나섰다"라는 제목으로 난, 매일 경제 신문 2008년 5월 6일자 기사는 스페인이 그간의 경기 호황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남미 이민자들이 건설과 농업, 서비스업 등 스페인 국민이 꺼려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실업률이 이전의 8%에서 2009년 10%로 전망되면서 스페인 정부는 EU의 비회원국 이민자 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총선에서 이민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민당(Partido Popular)는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의 이민법(Ley de Extranjería, 2004년 12월 30일)에 대해서 이민자들과 자국민들에게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불법 이민자 등 원치 않는 이들을 자국 내에 체류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국민의 실업률을 높이고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다고 반대했다.

요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규제망을 좁혀나가고 있지만 이미 스페인에 정착한 이들 모로코인 이민자의 사회 통합은 스페인의 몫이다. 불법 체류자의 증가로 인해서 모로코 해안지방과 서부 사하라지방에서 안달루시아와 카나리아 제도로의 범죄망이 넓혀졌다는 자료로 인해 "EU의 남쪽 해안 경계망 강화"[8]를 내걸고 FRONTEX(European External Borders Agency)를 중심으로 EU회원국과 비 EU회원국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모로코 이민자 범죄의 그 대표적인 예로 엘 에히도(El Ejido)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들 수 있다. 2000년 1월 22일, 24세의 한 모로코 태생 청년이 엘 에히도 지방에서 두 명의 농부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9] 10일이 지난 후, 다른 마그렙 출신의 이민자가 가까운 시장에서 26세의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그 지방 젊은이들이 각목으로 무장을 하고 도로를 막아서서 모로코 이민자들의 상점과 거주지, 차량을 불태우는 사태가 벌어져 인종차별주의적인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 사건은 미래 스페인에 이주해 올 모로코인에게 크나큰 위기로 비추어졌다. 또한 당시 총리였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는 이민법의 규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이민자의 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이르렀고 스페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3. 스페인의 이민 규제 정책

내무부 장관인 하이메 마요르 오레하(Jaime Mayor Oreja)는 "ETA가 20

---

8) http://europa.eu/scadplus/leg/en/lvb/l14541.htm (2008.10.20. 검색)

9) "Pintada xenófoba en El Ejido tras los sucesos racistas del año 2000" 20 Mar. 2004 <http://www.lavozdeasturias.es/noticias/noticia.asp?pkid=118566>. (2008.11.20. 검색)

세기 스페인의 당면 과제였다면 21세기 당면과제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10] 그러나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몰아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어 범법자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11] 행정부에서는 쎄우따와 멜리야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 전자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방 20킬로미터까지 감시 하는 등, 이들 모로코 이민자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강화시켰지만, 모로코 이민자의 90%가 불법으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별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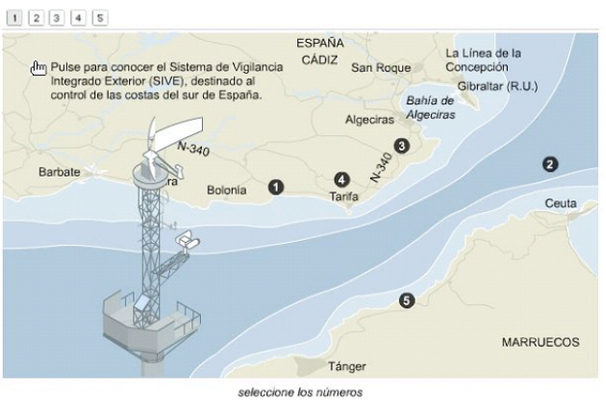
불법이민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불법이민의 원인이 제3국가의 경제적 빈곤에 있음을 인지하고 유럽 연합에 속해있는 지중해 국가들은 경제적, 기술적인 원조를 골자로 하는 유럽-지중해 협력 안을 발표했다. 바르셀로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적인 원조는 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2억 50만 유로로 책정해서 유럽연합과 제3국가 사이에서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한 이민정책 조

10) http://www.xornal.es/search.php?q=Mayor%20Oreja&r=10&o=70&s=138 (2008.04.04. 검색)

11) "Estrecho de las pateras y sistema integrado de vigilancia Exterior(SIVE)," *El País*.

12) 사나 카트리나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The Problem of Immigration and Contemporary Spanish Detective Fiction,"(Department of Spanish and Portuguese,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스페인의 불법 이민자들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신문기사 및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El País*: "Interceptada en Granada una patera con 36 inmigrantes: Es la segunda embarcación localizada en la zona en sólo 48 horas"(29 Apr. 2006); "Interceptadas en Tenerife dos pateras con 121 inmigrantes mauritanos: Al menos dos de los 'sin papeles' son menores" (21 Mar. 2006); "Una patrullera de la Guardia Civil inspecciona un barco con 200 inmigrantes en Canarias: Si se confirma que la embarcación no sufre daños, no desembarcará en las islas" (14 Sep. 2006); "La comisión propone crear un sistema europeo de patrullas y vigilancia para interceptar pateras: Llega un cayuco a El Hierro con 99 a bordo" (30 Nov. 2006).

정에 나서고 있다.[13]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으로의 이민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유럽 여러 국가들은 이들 이민자들을 모둠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2) 스페인 남부 해안 규제를 위한 외부 감시 통합 시스템
(출처: 19/8/2008, *El País*)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유럽연합은 헤이그에서 "정의와 자유, 안정"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유럽 여러 지역에 퍼져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견제와 제제를 중심 아젠다로 내걸었다. 2005년 12월 15일, 유럽 의회에서는 특히 지중해 유역에서 계속되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졌고 2006년 7월, 유럽 연합 위원회에서 주요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망을 형성하기에 이른다.[14]

---

13) "Important Legal Notice,"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immigration/printer/fsj_immigration_intro_en.htm (2008.12.20. 검색)

14) "Wide-ranging common actions to combat illegal immigration at EU level and promote return of illegal immigrants"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immigration/illegal/fsj_immigration_illegal_en.h...(2007.12.10. 검색)

제3국가의 불법이민자 견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도입과 이민자의 합법화를 위해서 경제 이민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의 이민정책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안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유럽 연합과 이민국간의 협력 하에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절차를 법제화하여 국가 간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자 연한이 끝난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처럼 유럽 연합이 이민정책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불법이민을 저지하고 이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재정적으로 뒤받침 하는 것이었기에 유럽 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지중해 연안 정찰 네트워크 (Mediterranean Coastal Patrols Network)의 조성과 불법 이민자들의 감시망 구축 등을 통해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렇듯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의 이민정책 방향은 비회원국에 대한 규제 강화와 EU회원국들 국민들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 허용을 통한 경제통합이다.

결국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즉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이민자 정책과 대외적인 담화로서의 이민자 정책 사이의 급격한 차이는 이민자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사이에서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스페인의 이민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면, 유럽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에서의 공동 대응을 기본으로 하며 이민정책 역시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들의 경계는 유럽과 비유럽으로 나누어진다. 스페인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별성에 관한 공동의 의견 수렴을 주제로 하면서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 핵심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대처에 있다. 스페인 이민 규제 정책의 배후에는 이민 그 자체를 유럽에 대한 제3국의 협박이자 문젯거

리로 보는 '민족주의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편견의 시작을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모로코 이민자의 사회 통합

1) 이슬람에 대한 편견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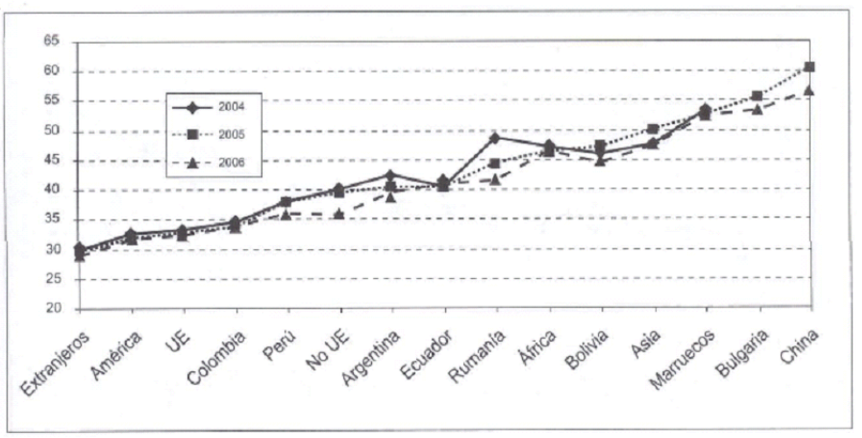
19세기부터 시작된 민족주의의 발로가 오늘날에는 국가 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을 정치,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스페인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문화적 차원에서 생각해보게 된다. 이슬람주의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조직이다. 이슬람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회 현상은 문화나 사회 현상 그 자체로 파악되기 보다는 신앙에 기인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이 어렵다. 예를 들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마치스모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비판하지만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히잡 착용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에 대한 의무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보는 점 등이다. 이렇듯 이슬람 종교가 지닌 능력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무슬림들을 지배하는 힘이기에 코란의 구절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지하드는 신을 위한 복수를 자신의 임무로 삼기 때문에 그들과의 타협의 여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지하드의 테러리즘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무슬림)/그들(기독교인)을 분리시키고 상대방을 위협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문화를 소유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까딸

루냐 지방에는 초국가적인 이슬람 종교 단체들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삶을 결집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로코 이민자들을 결집시키는 이슬람 종교 단체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이민자들의 문화와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두루 미치면서 이슬람 세계라는 하나의 정체성 속에 이들을 묶어둔다. 프란시스코 갈바체(Francisco Galvache)는 서방 세계에 대한 이슬람의 급진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스페인에 있는 무슬림 단체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15] 그에 의하면 까딸루냐 지방에 있는 무슬림 단체는 크게 수직, 수평, 그리고 횡단의 세 방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초국가성, 조직성, 그리고 규범성의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수직적인 방향은 이슬람교가 지닌 규범성에 기초한 것이고, 수평선은 이슬람 종교 단체가 지닌 조직성을 시사하고 마지막으로 초국가적 성향은 종교를 통해서 무슬림 세계를 통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수직적인 체계를 이루는 이슬람 연합 단체로서 "이슬람 종교 단체의 스페인 연방"(Federación Española de Entidades Religiosas Islámicas)과 "스페인 이슬람 공동체 연합"(Unión de Comunidades Islámicas de España)이 있는데 이들은 무슬림 이민자들의 종교적 규범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성격 이외에도 그 조직성에서 볼 때, 까딸루냐 지방에 있는 무슬림 이민자 전체를 조직적, 체계적, 행정적으로 대표할 만한 규모를 갖고 있다. "까딸루냐의 이슬람 문화 이사회"(Consejo Islámico y Cultural de Cataluña)는 까딸루냐에 자리잡고 있는 무슬림 세계의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결집시키는 조직성을 띤다고 하겠다. 그리고 초국가성을 띠는 것으로는 까딸루냐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을 감독하고 무슬림 국가들로부터 분파되어져 나온 여러 종교 단체들에 대한

15) Francisco Galvache, "Islam y Occidente frente al radicalismo islamista y el terrorismo yjhadista", July. 2008. http://www.ciaonet.org/ journals/aij/v3i3/02.htm (2009.01.31. 검색)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라 야맛 타블리그(la Yama'at Tablig)'와 같은 단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슬람 종교 단체들은 모로코 이민자간의 결집을 위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스페인 내에서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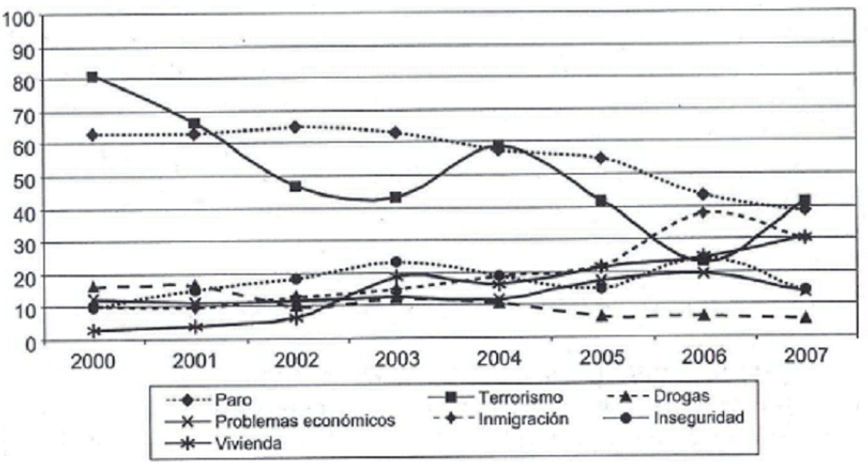
아래의 (표3)에서 보다시피 스페인 이민국 중에서 콜롬비아와 페루 등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들은 대체로 스페인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고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특히 모로코 이민자들은 스페인 사회에 대한 동화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1월 616,486명의 모로코 이민자들 중에서 스페인 국적을 획득한 자가 96,675명에 불과한 데 반해서 콜롬비아인의 경우 288,753명 중 30,399명이, 그리고 페루의 경우 이민자의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적을 획득했다. 이는 오늘날 스페인 이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로코인들보다 중남미인들이 사회에 적응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예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EU에 속하는 국가의 이민자들은 80%에서 90%에 해당하는 높은 국적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표3) 마드리드 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부적응 지수
(출처: 2004~2006 국가통계청)

이를 통해서 종교를 비롯한 문화적인 차이가 스페인인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갖는 외국인 혐오증의 주요인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모로코 이민자 측에서도 스스로 불법 체류로 인하여 위험한 민족, 내지는 소외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사회에 대해서 범법자라는 자기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체성은 이민 1세대 뿐 아니라 이민 2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민 2세대들은 이민 1세대에 비해서 사회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상대적 상실감'은 이민 1세대에 비해 더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 욕구의 좌절로 인해, 사회 참여가 거부당하면 범죄 집단으로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볼 때, 치안이나 경제적 불안 요인을 핑계삼아 이민자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는다고 하겠다.



(표4) 2000~2007년 사이의 스페인 국민의 우려사항(출처: 사회학 연구 센터 (CIS=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CIS 2405, CIS 2411, CIS 2474, CIS 2548, CIS 2612, CIS 2649, CIS 2724)

(표4)는 스페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감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서는 2000년에서 2007년에 거쳐 테러리즘과 파업이 1,2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이민'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스페인 자국민의 위협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세보야 보아도(Cebolla Boado 2008, 231)는 이민이 스페인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배후에는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라는 보수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고, 쎄아 다코나(Cea D'Ancona 2005, 197)는 이민자들의 도래로 인한 노동 기회의 박탈이 외국인 혐오주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무슬림들에 대한 스페인인의 반아랍주의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스페인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으로 굳어져 버렸다. 안토니오는 무슬림의 스페인 지배 800년의 역사의 부산물의 하나로 '피의 순수성'의 신화를 들었고 이것은 스페인인이 강박 관념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Antonio 1996, 56)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렌트(Arendt)는 무슬림들이 종교, 정체성, 문화에 있어 "이슬람"

이라는 전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들과 종교적, 문화적 성향을 달리한 국가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이유가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 이민자들을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정형화시켜 버리는 누를 저지르기 때문(Arendt 1988)이라고 지적했다. 또 루이스는 무슬림들이 유럽 민주주의 국가와의 공존이 어려운 이유가 스스로의 뜻이나 자유의지 보다는 신의 뜻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삶의 신조가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의 시민정신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Lewis 1990). 미켈 에빨사는 모로코 이민자들이 스페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중해 문명 교류가 시작되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유럽과 남쪽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M. Epalza 1988, 40).

『다인종주의 사회 La sociedad multiétnica』라는 저서에서 작가 지오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다문화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서양 사회의 문화적인 체계화를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폐쇄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Sartori 2001, 34). 또, 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교육에 있어서도 이슬람교처럼 종교가 사회와 문화, 법적인 모든 삶을 규제하게 되면, 종교가 다른 이민자 2세의 이민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로뻬스 가르시아(García 2002, 129)는 외부의 문화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는 EU를 비롯한 유럽 이민국들의 정책 방향이 일부 사르토리의 견해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특히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민족성이 그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 들어와 살고 있는 주민의 문화 정체성에 의해서 한 국가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자국민의 삶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민주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삶인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미켈 아쥬르멘디(Mikel Azurmendi)는 사르토리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즉 사르토리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지만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틀에 따라 볼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집단의 틀을 벗어나서 한 개개인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미켈의 주장이다(Mikel 2001, 9). 개개인의 사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인종성(etnicidad)'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켈은 집단이나 민족의 정형화에서 오는 자아/타아의 이분법적인 적용을 경계하고 개인으로서 그 사회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민자 스스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으로 타자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민국의 문화적 가치들을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이민국은 이민자들을 사회의 한 변방을 차지하는 소외 집단으로 타자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16]

사르토리와 미켈의 입장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국의 문화가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이민국의 사회 정체성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이론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스페인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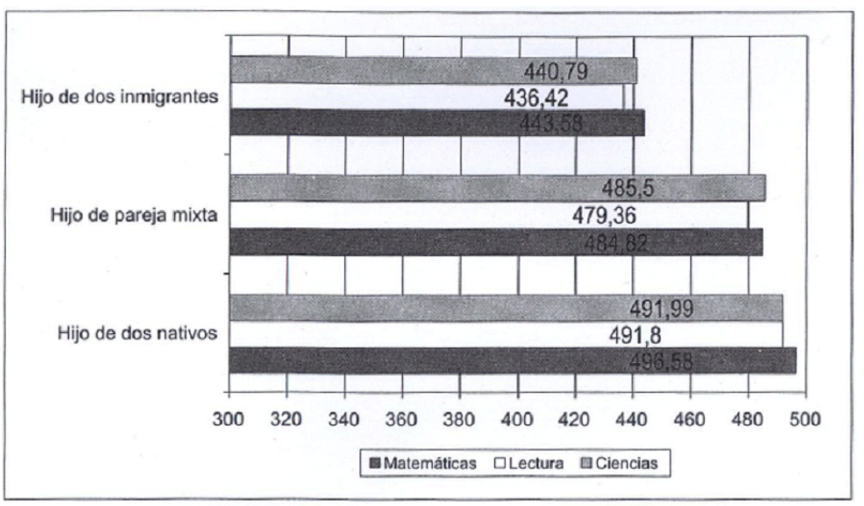
2)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먼저 이민 2세대의 교육을 통한 이민자 통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15세 미만의 모로코인이 전

16) "La oposición acusa al Gobierno de alentar la xenofobia con su tesis sobre el multiculrualismo." *El País*, 27 de febrero de 2000.

체의 50%를 차지하면서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래의 (표5)는 이민자의 자녀들과 스페인 자국민의 자녀, 그리고 스페인인과 결혼한 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이들의 학업 수준을 조사한 표이다. 여기서 부모 중 한명이 스페인인의 경우, 자국민의 자녀와 비교해볼 때 학업 능력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지 않지만 이민자 자녀의 경우, 언어 영역 뿐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 등 전반에 걸쳐서 학업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회부적응이 우려되고 있는데 (표5)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1세대 뿐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뿌리내리고 살기 위해서 이들에게 범법자 내지는 사회적 타자라는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쌍방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페인 지역 중에서는 이들 모로코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모로코 자국 언어문화 교육원(Enseñanza de Lengua y Cultura de Origen Marroquí)을 세워서 모로코 이민자 2세 초등생들의 아랍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Mijares 2004, 418). 실제로 스페인 사회에서 지식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로코 출신 이민자들의 수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모로코 불법 이민자의 삶의 애환을 담은 소설을 통해 스페인 사회에 만연해있는 아랍인 혐오주의를 고발하는 스페인 출신 작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표5) 부모의 이주 상태에 따른 학생성취척도 프로그램의 평가 (출처: 2003년 학생성취척도 프로그램(PISA=Programme for Indicators of Student Achievement))

1997년에 나와서 2004년 영화화된 후안 마드리드 원작의 『땅헤르』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모로코로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온 한 압둘 사이드(Abdul Said)의 꿈이 어떻게 좌절되어져 가는가를 통해 스페인에 거주하는 불법 노동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자성케 한다. 마리우스 세라(Màrius Serra)의 이민자 소설 『광대놀이 Farsa』은 이민자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다루고 있다. 또 노벨라 네그라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로렌소 실바(Lorenzo Silva)가 쓴 『남이 더 낫지 Nadie vale más que otro』(2004)라는 소설에서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있고, 호세 오베헤로(José Ovejero)가 쓴 『아무 일도 없다 Nunca pasa nada』(1993)은 마피아와 연계되어 벌어지는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를 그리고 있다. 스페인 작가 뿐 아니라, 외국 작가들이 스페인 이민자들을 소재로

해서 쓴 작품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니아 출신의 도나또 동고(Donato Ndongo)가 쓴 『지하철 El Metro』(2007)은 스페인으로 이민 온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 소설로서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에 대한 좀 더 글로벌화 된 시각을 제시한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화해와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주의나 아랍인 혐오주의의 탈신화화를 꾀하는 것들이다.

두 번째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방안을 모색해본다. 2003년 5월 16일, 까사블랑까와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에서 모로코 이슬람 전투 집단(GICM)의 일원인 후세이니(Hussaini)의 테러가 있었는데 이 테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식이 공동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사다까: 우정을 키워나가는 것(Sadaqa: construir amistad)"(Akalay 2004, 450)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열린 공동 추도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간의 생존권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관용, 민주주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종교적인 광신주의를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쌍방의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모임을 가졌다. '사다까'는 아랍권 국가와 기독교권 국가 간의 테러 방지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만남이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민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한 스페인은 이민 규제를 통해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을 거쳐 서유럽으로 나아가려는 이민자 규제정책은 유럽 요새의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EU의 이민자 규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유럽의 최남단 보루로서 북아프리카를 지척에 두고 있는 지리적 관계로 인해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유입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 이민자들과 그의 2세들이 자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스페인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스페인 자신의 몫이다. 지하드의 테러 앞에서 스페인이 아랍 국가인 모로코와 사다까(우정)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화해와 위로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스페인이 여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민족, 특히 아랍과의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완충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본다.

최근 사르코지가 유럽 27개국에 공통으로 적용시킬 이민자 규제 정책을 6월 27일 사라고사 정상회담에서 채택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의 핵심은 북부 아프리카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 방안의 하나로 들고 나온 것이 불법 체류자들의 본국 송환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페인은 "스페인은 이민 협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프랑스를 설득하고자 한다 España intenta convencer a Francia para suavizar el pacto de inmigración"(el 7 de Junio de 2008)라는 제목 하에 이민자의 규제 보다는 이들의 사회 통합에 뜻을 모으고 있음을 시사했고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이민자에 대한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모로코인이 어떻게 하여 유럽으로 옮겨오게 되었는지, 키프 재배자가 스페인에 처음 머물게 된 이유와 이민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안달루시아를 비롯해서 까딸루냐 지방에 살고 있는 모로코 이민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중남미나 동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사회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이슬람/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사회 적응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았다. 이슬람주의는 종교이기에 앞서 이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며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아랍인들과 종교적 갈등의 골이 깊었던 스페인 거주 모로코 이민자들은 문화적 타자로 소외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은 이민자 규제 정책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등지에서 이민 노동 뿐 아니라, 국제결혼 등 이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이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문제는 이민자 1세대 뿐 아니라, 2세대로 넘어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보이고, 자칫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사회 참여에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그 사회의 범죄 조직과 연계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 이민자 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뿐 아니라, 이민자 스스로도 이민국 사회의 문화 속에 함께 동화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스페인은 EU의 일원으로서 "유럽의 요새화"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EU회원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협상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다까"처럼 민간 차원에서 모로코 이민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간의 왜곡된 스테레오타입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더 이상 사회, 경제적인 불안 요인을 제공하는 범법자가 아니라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를 이끌고 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다문화주의와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을 극복함으로 제2의 지중해 문명을 꿈꾸는 지중해 연합(MU)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Akalay, Lofi(2004), "M: testimonios marroquíes solidarios," *Atlas de la inmigración marroquí en España*, Madrid: UAM Ediciones, p.450.

Arendt, Hannah(1988), *Los orígenes del totalitalismo,* Madrid: Taurus, p.222.

Azurmendi, Mikel(2001), "Inmigración y conflicto en El Ejido," *Claves de Razón Práctica,* n° 116, pp.8-17.

Castaño, García(2002), "La inmigración en España: contextos y alternativas" Vol. II. Actas del III Congreso sobre la inmigración en España, Granada, Laboratorio de Estudios Interculturales, pp.407-420.

Cea D'Ancona, M.A.(2005), "La exterionrización de la xenofobia" *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112, pp.197-230.

Cebolla Boado, H.(2008), *La inmigración en España (2000-2007)*, Madrid: Centro de Estudios Políticos y Constitucionales, pp.231-232.

Epalza, M. de(1994), "Imágenes entre ambos lados del Mediterráneos: Geografía e historia del atlas al icono," *Atlas de la inmigración marroquí en España*. Madrid: UAM, p.21.

_____(1988), "El Magreb y Africa en el Atlas de Mercator," (de 1569) *Planos y mapas hispánicos de Argelia* (Siglos XVI-XVIII), Madrid : Secretaría de Estado para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y para Iberoamérica, pp.40-44.

García-Canclini, Néstor(2004), Cultru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City: Random House.

Hungtinton, Samuel(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 Stone, pp.102-103.

Izquierdo, Antonio(1996). "La inmigración inesperada: población extranujera en España(1991-1995). Madrid: Editorial Trotta.

Lewis, Bernard(1990), "The Roots of Muslim Rage," *The Atlantic Monthly*, vol. 266, September, p.60.

López García, Bernabé(1996), "La cooperación de España con el Magreb" *Atals de La inmigración magrebí en España*, Madrid: UAM, p.213.

_____(1994), *El Anuario Estadistico de España*, Institut Català d'Estudis Mediterranis, Barcelona: Ministerio del Interior, p.109.

_____(2002), "El Islam y la integración de la inmigración social" *Cuadernos de Trabajo Social* Vol. 15, pp.129-143.

Madelecme, Byrne(2007), "Fortifying Europe" *Europe: New Voices, New perspectives,* The Contemporary Europe Research Center, pp.9-11.

Mcneill, J. R.(1992), "Kif in the Rif: A Historical and Ecological Perspective on Marijuana, Markets, and Manure in Northern Morocco",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12, No. 4, pp.382-392.

Mijares, Laura(2004), "Los niños marroquíes en la escuela española", *Atlas de la inmigración marroquí en España*, Madrid: UAM, p.418.

Moreras, Jordi(2004) "Marroquí en Cataluña", *Atlas de La inmigración marroquí en España.* Madrid: UAM, p.217.

Sartori, Giovanni(2001), *La sociedad multiétnica, Pluralismo, multiculturalismo y extranjeros*, Madrid: Taurus, p.34.

▌논문투고일자: 2009년 4월 4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22일